

『카터 시대의 남북한: 동맹의 위기와 민족의 갈등』

이완범(Wan Bom Lee)

카터 개인을 중심으로 남북미 관계에 영향을 미쳤던 미시적 사건들을 연대기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한국 현대정치외교사의 디테일을 조명했다. 카터 행정부 당시 3자회담 구상이 카터 대통령 개인의 구상이었으며 그가 포기함으로써 힘을 잃었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을 중점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데 미시적 사건 위에 당연히 거시적 구조와 층위가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가 한반도 평화정착을 저해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며 현상을 유지하는데 보다 큰 틀에서 압도적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카터와 박정희, 김일성이라는 최고지도자들은 구조 앞에 놓여있는 초라한 개인에 불과했으며 카터의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들이 미국과 남북한의 최고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세계정치의 구조에 압도당했던 것이다.

유일한 영도자이며 독재자 김일성이 직면한 북한 국내정치의 구조는 전체주의적인 것이므로 그는 거의 전체 사회체제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의 남한 국내정치에 대한 장악력은 비교적 강했다. 이에 비해 카터의 경우는 민주국가의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정치구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의 최고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치에 대한 영향력이 앞의 두 지도자에 비해 현격히 약했다.

또한 3인의 지도자가 접했던 세계정치의 구조는 국내정치보다 더 복잡적이었고 다면적이었으므로 가히 압도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카터의 3자회담 추진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시도는 개인 주도 정책의 한계에다가 참모, 의회 등 미국 국내정치의 구조적 반대, 세계정치의 규정성에 직면해 결국 실패했다. 박정희와 김일성, 그 이후 김영삼과 김일성의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정착 시도도 역시 세계정치의 구조 속에서 실패했다. 이들의 개인적 시도가 국제정치의 구조에 구속되어 비록 실패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냉전적 세계체제가 해체된 후 세계체제로부터의 압박에 위기의식을 느낀 북한이 체제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시도해 위기가 발생했다. 이에 1978-1979년 카터의 개인적 시도가 1994년 다시 부활하여 비록 전임 대통령의 한계를 가졌음에도 탈냉전의 상황에 부응한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될 뻔했고 북미고위급회담(제네바핵합의)으로 핵위기가 한시적이거나 봉합되었다.

김일성의 사망으로 카터의 3자회담 구상은 더 진전되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는 4자회담, 6자회담이라는 우회적인 결실을 맺기도 했다. 또한 2000년 김정일-김대중의 남북정상회담, 2007년 김정일-노무현의 남북정상회담, 2018년 김정은-문재인의 남북정상회담, 트럼프-김정은의 북미정상회담, 2019년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북미정상회담 직후 문재인이 함께한 3자 깜짝 회동으로 결실을 맺어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 계속 시도되고 있다.

정상 개인이 주도하는 외교가 장기적으로는 구조의 한계를 차츰 차츰 단계적 점진적으로 허무는 역할을 했으므로 대통령이나 최고지도자의 정상외교가 당장 압도적 구조 앞에서는 초라해 보이며 실제로 정상회담은 사진찍기용 보여주기 행사에 그쳐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카터의 1994년 개인외교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상외교나 개인외교가 徒勞라고만 할 수는 없다. 그간 우리 국제정치학계는 세계정치라는 거시적 틀에 주로 주목해 지도자 개인과 같은 미시적 차원은 간과하거나 놓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사례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이다.

이 책에서 지금까지 다룬 미시적 정상외교의 작은 그림에 기반해 거시적 구조와 층위 그리고 현상 이면에 심층적으로 작용하는 국가행위의 다면적 구조와 영향력에 대한 기왕의 분석을 연계시킨다면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차원의 그림을 뛰어 넘는 보다 거시적인 큰 그림 그리기를 완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보다 심층적이고 설득력 있는 분석과 설명을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보여준 디테일과 기왕의 국제정치학자들이 주목한 큰 그림의 결합인 셈이다. 후속 연구를 기대하는 바이다.

이완범(李完範)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로 한국 현대정치사, 한국분단사, 한국과 국제정치 등을 강의하고 있다. 현대남북정치외교사 전공이며 최근의 관심 분야는 박정희 시대사, 한미관계사, 남북한 통일정책, 김일성 연구 등이다. 주요 저서로 『카터시대의 남북한』(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7; 2019 ICAS 한국어 우수 학술도서 수상작; 2018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2017년 한국대학출판협회 올해의 우수도서); 『한반도 분할의 역사』(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2013년 제54회 한국출판문화상 저술 학술 부문 후보작); 『38선 획정의 진실』(서울: 지식산업사, 2001; 2001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 『한국전쟁: 국제전적 조망』(서울: 백산서당, 2000); 『1980년대 한국사회 연구』(서울: 백산서당, 2005, 공저); 『박정희와 한강의 기적: 1차 5개년계획과 무역입국』(서울: 선인, 2006); 『한국해방3년사』(파주: 태학사, 2007); 『해방전후사의 인식』 3·4·6(서울: 한길사, 1987~1989, 공저)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 “‘2008년 촛불시위’의 영향”; “6-25전쟁의 명칭과 그 의미”; “건국 기점(起點)논쟁: 1919년설과 1948년설의 양립” 등이 있다.